

국제목록원칙 2009 제정에 따른 한국목록규칙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Directions of KCR4 under the New ICP 2009

이 미 화(Mihwa Lee)*

목 차

- | | |
|--------------------|---------------------------|
| 1. 서 론 | 4. 국제목록원칙 2009와 한국목록규칙 비교 |
| 2. 목록원칙과 목록규칙의 관계 | 5. 한국목록규칙 고려사항 |
| 3. 국제목록원칙 2009의 특징 | 6. 결 론 |

초 록

본 연구는 파리원칙을 대체하고, 기계가독형목록환경에서 제정된 국제목록원칙 2009의 분석을 통해 한국목록규칙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목록원칙 2009는 국가의 목록규칙 제정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으로 RDA, ISBD 2010 등의 목록규칙에 이미 반영되고 있다. 반면, 한국목록규칙은 2003년 제정된 이후 개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서지기술 부분만 있고 접근점의 선정과 형식은 전거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목록원칙 2009를 분석하여 한국목록규칙에서 적용할 사항을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파리원칙과 국제목록원칙 2009를 비교하여 국제목록원칙 2009의 특징을 살펴본 후, 이를 한국목록규칙과 비교하였다. 한국목록규칙과 비교항목은 국제목록원칙 2009의 범위, 원칙, 개체·속성·관계, 목록의 목적과 기능, 서지기술, 접근점, 탐색능력 기반이었다. 그 결과 한국목록규칙의 방향성은 첫째, 기술부분에서 ISBD 2010과 개념모델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국제목록원칙 2009에 근거하여 전거형 접근점의 선정과 형식이 규정되어야 한다. 셋째, 저작/표현형의 식별을 위한 필수 접근점을 서지레코드와 전거레코드에 기술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국제목록원칙 2009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목록규칙의 개정의 방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seeks to replace Paris Principles and find directions of revising KCR4 by analyzing the International Cataloging Principles 2009(ICP 2009) established in the environment of Machine Readable Cataloging. ICP 2009 was reflected in cataloging rules such as RDA and ISBD 2010 as the minimal principles for uniformity in establishing each nation's cataloging rules. In contrary, KCR4 needs to be revised because it has never been changed after 2003, and has only description rules without any rules for the choice and forms of access point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grasp requirements that should be reflected in KCR4 through analyzing ICP 2009. In first step, it is to grasp the features of ICP 2009 by comparing Paris Principle and ICP 2009 and to compare KCR4 in aspects of ICP 2009. The detailed elements for comparison between ICP 2009 and KCR4 are scope, general principles, entitles, attributes, and relationships, objectives and functions of the catalogue, bibliographic description, access points, foundations for search capabilities as the contents of ICP 2009. As a result, this study could give some directions of KCR4 in the future. First, ISBD 2010 and conceptual models should be reflected in KCR4 in description. Second, it should regulate the authority access points in KCR4 based on ICP 2009. Third, it will describe essential access points of work and expression attributes in bibliographic records and authority records to find works and expression.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guide the national cataloging rules.

키워드: 국제목록원칙 2009, 한국목록규칙, 파리원칙, 접근점, 전거형접근점, 이형

ICP 2009, KCR4, Paris Principles, Access Point, Authorized Access Point, Variant Form of Name, FRBR, FRAD

*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문헌정보교육과 전임강사(leemh@kongju.ac.kr)

논문접수일자: 2012년 4월 4일 최초심사일자: 2012년 4월 16일 게재확정일자: 2012년 5월 16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2): 261-280, 2012. [http://dx.doi.org/10.4275/KSLIS.2012.46.2.261]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서지레코드의 기능적 요건(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이하 FRBR), 전거데이터의 기능적 요건(Functional Requirements for Authority Data, 이하 FRAD), 국제목록원칙 2009(International Cataloguing Principles, ICP 2009, 이하 국제목록원칙 2009), 자원의 기술과 접근(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 이하 RDA), 국제표준서지기술 2010(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2010, 이하 ISBD 2010)이 제정되면서 앞으로 목록분야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개념모델이 목록원칙과 규칙에 이미 상당한 영향을 주었고, 국제목록원칙 2009는 RDA, ISBD 2010과 같은 목록규칙에 반영되고 있다. 특히 국제목록원칙 2009는 각 국가의 목록규칙 제정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침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목록, 주제목록을 비롯하여, 서지데이터, 전거데이터, 현행 도서관 목록에 모두 적용된다(IME ICC 2009, 2). 이는 목록규칙의 방향을 제시하는 일반적 원칙이며, 목록규칙에 많은 영향을 주는 중요한 지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목록규칙 개정을 위해서도 국제목록원칙 2009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제목록원칙이 목록규칙에 끼친 영향력은 파리원칙 제정 이후 각국의 목록규칙 제정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61년 파리에서 열린 국제목록원칙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Cataloging Principles, 이하 ICCP)에서 제정된 파리원칙은 목록원칙에 대한 당시의 국제적

인 합의를 이루어냈고, 영미를 비롯하여 각국은 파리원칙을 준용하여 자국의 목록규칙을 제정하고 목록작업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파리원칙은 국제적인 합의이기보다 영미 중심의 목록원칙이었고, 제정당시 카드목록을 기반으로 한 원칙이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온라인목록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아 원칙의 수정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에 200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국제목록규칙전문가회의(IFLA Meeting of Experts on an International Cataloguing Code, 이하 IME ICC)에서 국제목록원칙 초안이 작성되었고, 이를 시작으로 2008년까지 여러 국가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2009년 국제목록원칙이 제정되었다.

국제목록원칙 2009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록규칙의 목표로 규정하고, 용어를 FRBR, FRAD 개념모델을 바탕으로 변경하고, 텍스트 저작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자료를 기술 대상으로 하고, ISBD 2010을 바탕으로 한 서지 기술을 제안하고, 서지데이터와 전거데이터의 접근점 선정과 형식에서 파리원칙을 대체 및 확장하였다. 이러한 국제목록원칙 2009는 최근 새롭게 제정된 목록규칙인 RDA와 ISBD 2010에 적용되었고, 앞으로 각국의 목록규칙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목록규칙 개정시 국제목록원칙을 살펴보고, 이를 목록규칙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국목록규칙은 2003년 제정된 이후 개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서지기술 부분만 있고, 접근점의 선정과 형식은 전거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목록규칙의 개정을 위해 국제목록원칙 2009를 분석하여 한국목록

규칙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Creider(2009a)와 Guerrini(2009)의 연구를 바탕으로 파리원칙과 국제목록원칙 2009를 비교하여 국제목록원칙 2009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또한 국제목록원칙 2009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목록규칙을 비교하고 그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한국목록규칙과의 비교 항목은 국제목록원칙 2009의 범위, 원칙, 개체·속성·관계, 목록의 목적과 기능, 서지기술, 접근점, 탐색능력 기반이었다. 물론 원칙과 규칙은 그 목적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국제목록원칙 2009 측면에서 한국목록규칙의 방향을 파악하는 것은 가능하였다.

1.2 선행연구

국제목록원칙 2009에 관한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많지는 않았으나 새로운 원칙의 개념 및 특징에 관한 연구와 국제목록원칙을 파리원칙과 비교한 연구가 있었다.

국제목록원칙 2009의 개념 및 특징에 관한 연구로 이재선(2009)은 목록분야의 새로운 원칙과 규칙으로 국제목록원칙 2009, ISBD 2010, RDA의 특징을 기술하였으며, 국제목록원칙 2009와 관련하여 제정배경, 목록기능, 전거형 접근점에 대해서 개론적으로 기술하였다.

Bianchini & Guerrini(2009)는 목록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로 FRBR 개념모델, 국제목록원칙, ISBD 2010, RDA에 대해 설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기술하였다. 그는 국제목록원칙을 국제표준으로 국가의 목록규칙을 안내하는 방향지시자로 정의하였다.

Guerrini(2009)는 FRBR, FRAD 개념모델, 서지기술, 접근점과 전거통제, 탐색능력의 기반 등의 항목별로 국제목록원칙 2009의 내용을 분석하고, 결론으로 국제목록원칙의 바탕으로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국제목록원칙 2009를 파리원칙과 비교한 연구는 Creider(2009a)의 연구가 대표적인데 그는 파리원칙과 국제목록원칙 2009를 목록원칙의 범위, 기술의 영향력, 목록원칙에 관한 합의 과정, 용어, 추상화수준, 개념구조, 목록원칙 변화의 영향 측면에서 상호 비교하였다.

위와 같이 국제목록원칙 2009에 관한 연구는 이를 소개하는 내용이거나 파리원칙과의 비교가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국제목록원칙 2009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이를 목록규칙과 비교하여 규칙의 개정방안을 모색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앞으로 한국목록규칙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제목록원칙 2009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2. 목록원칙과 목록규칙의 관계

2.1 목록원칙의 개념 및 기능

국제목록원칙은 목록기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 원칙이며, 각국의 여러 목록규칙의 통일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으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의가 있다.

IME ICC(2009, 2)에서는 “제시된 국제목록원칙은 목록규칙을 제정할 때 지침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정의하였다. Bianchini & Guerrini(2009, 119)는 “국제목록원칙은 국제

적 표준, 국가의 목록규칙 및 다국적 규칙을 가이드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라고 정의하였다. Svenonius(2000, 67-68)는 서지원칙(bibliographic principles)은 서지목적(bibliographic objectives) 및 서지규칙(bibliographic rules)과 다르다. 서지목적은 이용자가 서지시스템에 기대하는 것을 코드화한 것이다. 즉 문헌을 찾고, 한 저작의 모든 구현형을 찾는 등의 이용자가 기대하는 사항을 코드화한 것이다. 반면 원칙은 이러한 체계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 서지언어의 설계를 위한 방향이다. 이 언어는 일반적으로 규칙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원칙 그 자체는 규칙의 집합을 설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지 규칙은 아니다. 이재선(2009, 125)은 원칙은 이용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규칙 제정자의 길잡이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정의를 종합하면 원칙은 목록규칙과는 다르며, 원칙은 여러 목록규칙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원칙은 목록규칙 및 목록과 관련된 각종 표준을 제어하는 가장 우선적인 가이드라인이고, 목록의 표준화를 위해 국제적으로 제시한 기준으로 각국의 목록규칙이나 표준은 이러한 원칙을 준용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제목록원칙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 각 국가는 목록원칙의 방향에 맞으면서 국가의 특성을 고려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2 목록원칙의 영향력

1961년 제정된 파리원칙은 범위, 목록의 기능, 목록의 구조, 기입의 사용, 기입별 기능, 통일표목의 선정, 단일저자성, 단체저자성, 다수 저자,

서명기입, 저자명의 기입어로 구성되었다. 이는 여러 국가의 목록규칙 제정 시 반영됨으로 각 국가별로 목록규칙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파리원칙이 선언된 이래 전 세계에서 제정된 대부분의 목록규칙은 엄밀하게 혹은 적어도 상당한 수준에서 이 파리원칙을 준용하였다(IME ICC 2003, 1; IMC ICC 2009, 1).

영미에서는 AACR을 파리원칙과 부합하도록 제정하였으며, 러시아도 자신의 목록규칙을 파리원칙과 일치하도록 제정하였다. 반면, 파리원칙의 채택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프러시아계 목록 전통을 따르던 국가에서 일어났다. 이 나라에서는 단체명 기입과 형식에 대한 규칙을 새로 만들어야만 했다. 독일도서관은 파리원칙 9.11 보다는 9.12의 내용을 채택함으로써 제한된 형태의 단체기입을 적용하였다. 독일은 여전히 단체기입보다는 개인저자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만일 어떤 저작이 한 개인의 이름 아래 기입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단체명은 고려하지 않았다(Creider 2009a, 594). 독일은 파리원칙을 최소한으로 준용하고 국가의 특성을 반영하여 규칙을 제정하였다.

위와 같이 파리원칙 이후 대부분의 목록규칙은 상당한 수준에서 파리원칙을 준용하였으며, 파리원칙은 약 40년간 목록규칙을 제어하는 원칙으로 큰 영향력을 미쳤다. 최근에는 기술의 변화에 따라 파리원칙을 대체한 국제목록원칙 2009가 제정되었고, 이는 RDA와 같은 최신 목록규칙의 기반이 되었으며, 앞으로 각국의 목록규칙에 폭넓게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원칙은 목록규칙의 구조를 결정하는 일반원칙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어 국내에서도 국제목록원칙 2009에 기반한 목록규칙을 마련

해야 할 것이다.

2.3 파리원칙과 3개 목록규칙 비교

파리원칙이 국가의 목록규칙에 미친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Cataloguing Code Comparison for the IFLA Meeting of Experts on an International Cataloguing Code(2003), Cataloguing Code Comparison for the IFLA Meeting of Experts on an International Cataloguing Code: Response submitted April 22, 2003 Draft(2003)의 조사를 바탕으로 비교하였다(〈표 1〉 참조). 분석대상은 영미 목록규칙 AACR2(2002), 프랑스 목록규칙 AFNOR(1986-1999), 러시아 목록규칙 RCR(2003) 목록규칙이며, 분석 항목은 범위, 목록기능, 목록구조, 저록의 종류, 여러 저록의 이용, 다양한 저록의 기능, 통일표목의 선정, 개인저자, 단체저자, 여러 저자성, 서명기본저록, 개인명기입어의 파리원칙의 내용이었다.

파리원칙에서는 표목과 기입어의 선정과 형식이 핵심적인 내용을 구성하고 있었다. 우선 원칙에는 목록기능인 검색과 집중을 위해 목록의 구조는 적어도 한개 이상의 저록이 필요하고, 저자의 여러 이름, 공저자, 여러 서명을 위해 복수의 저록이 필요하다고 기술되었다. 비교 대상인 3개 목록규칙 모두 표목과 기입어의 선정과 형식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었으며, 복수의 저록을 규정하였다.

저록의 종류에서 파리원칙은 기본저록, 부출저록, 참조저록을 두었으며 통일표목의 선정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이름이나 원어를 사용할 것을 규정하였다. 3개의 목록규칙도 기본저록,

부출저록, 참조저록을 유지하였으며, 저자명의 이형과 서명의 이형을 위한 통일표목을 목록규칙에 규정하였다. 단, 카드목록을 대체한 기계가독형목록을 사용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기본저록, 부출저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하나의 목록레코드에 모두 기술하였고, 통일표목은 규칙에 규정되었으나 실제로 기술하지 않는 곳이 있었다.

3개국의 목록규칙을 조사한 결과 파리원칙이 목록규칙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카드목록에 맞게 작성된 원칙을 기계가독형목록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실제 목록에서는 규칙을 변형해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프랑스 목록규칙에서는 파리원칙을 준용하여 기본저록은 유지하였으나, 이 기본저록은 카드목록에서 배열을 위한 기능이기 보다 온라인목록 디스플레이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으로 보았다. 파리원칙은 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원칙이었지만 도서관의 목록대상 자료유형이 다양해지면서 대상 자료유형을 '책'에서 '모든 자료유형'으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살펴본 바와 같이 카드목록 기반의 파리원칙이 기계가독형 목록에는 맞지 않아 새로운 목록환경에 적합하도록 파리원칙을 대체하는 국제목록원칙 2009가 제정되었다. 국제목록원칙 2009의 채택 결과로 규칙에 미칠 영향력은 현재로서 가늠하기 어렵다. 다만, 국제목록원칙 2009는 파리원칙보다 광범위하게 현행 목록관행의 변화를 수용하여 파리원칙에서 주로 기술한 기입의 선정에 관한 논의 대신 추상적인 내용으로 목록데이터의 다양한 표현을 인정하고 있다. 이미 ISBD의 개발 및 채택과 같은 일련의 이러한 변화와 국가별 여러 MARC 포맷의

〈표 1〉 파리원칙과 3개 국가의 목록규칙 비교

파리원칙	AACR2 (영미)	AFNOR (프랑스)	RCR (러시아)
범위	파리원칙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음	- 파리원칙과 일치하지만 자동화 목록개발로 최근 차이가 있음 - 자동화목록에서 접근점간에 차이가 없음 - 기본표목은 카드목록에서 배열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함	- 카드목록에서 일치 - 기계가독형목록에서 기본기입과 부출기입은 하나의 레코드에 기술됨
목록기능	파리원칙과 동일	- 파리원칙과 동일 - 책만이 아닌 모든 자료유형에 해당함	파리원칙과 동일
목록구조	- 파리원칙과 동일 - 동일저자의 여러 이름은 부출보다 전거파일 참조를 통해 이형을 제어함	[답변하지 않음]	파리원칙과 동일
저록의 종류	기본저록, 부출저록, 참조저록	하나의 MARC 레코드 내 모든 표목을 수용	- 기본저록유지 - Full entry 작성
여러 저록의 이용	- 개인명, 단체명, 서명과 각각의 전거형 규칙이 있음 - 부출과 참조에 관한 규칙이 있음	통일표제 기술을 실제로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있음
다양한 저록의 기능	- 이름과 단체명의 경우 통일표목을 사용하고, 서명은 통일서명을 사용함 - 공저자를 위해 부출을 사용함	- 통일표제는 제한되어 사용됨 - 자동화목록에서 동일저자의 여러 형식은 전거레코드 참조로 관리됨	- 전거파일에서 이루어짐 - 공저자에 대한 접근점 제공함
통일표목 선정	가장 잘 알려진 이름을 사용함	사용함	원어명을 사용함
개인저자	개인저자의 기본저록	- 개인저자의 기본저록 - 단 자동화목록에서 서명도 항상 접근점임 - 가장 잘 알려진 이름을 이용	개인저자의 기본저록
단체저자	- 단체저자명 기술 - 단체명을 기술하는 범주가 정해져 있음	단체저자명 기술	단체저자명 기술
여러 저자성	- 주요 저자를 기본저록 - 나머지 저자는 부출저록	- 주요 저자를 기본저록 - 나머지 저자는 부출	- 주요 저자를 기본저록 - 나머지 저자는 부출
서명기본저록	- 서명저록 사용 - 파리원칙을 그대로 준용	[답변하지 않음]	서명저록 사용 (예) 저자미상, 저자가 4명이 상인 경우 등
개인명 기입어	저자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이름을 선정	[답변하지 않음]	저자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이름을 선정

※ ICCP(1961), Cataloguing Code Comparison for the IFLA Meeting of Experts on an International Cataloguing Code(2003), Cataloguing Code Comparison for the IFLA Meeting of Experts on an International Cataloguing Code: Response submitted April 22, 2003 Draft(2003) 참조

개발과 채택은 1961년 파리원칙에 의해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목록원칙 2009도 파리원칙의 영향과 유사하게 목록분야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며(Creider 2009a, 595), 이에 따라 목록규칙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

3. 국제목록원칙 2009의 특징

3.1 원칙제정 배경

국제적인 목록원칙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961년 파리에서 개최된 ICCP에서 최초의 목록원칙인 파리원칙이 채택되었으며, 이 원칙은 약 40년간 전세계 목록규칙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기술 환경의 변화로 기계가독형목록의 출현, 새로운 형태의 자료들을 고려한 목록 형식의 필요성, 신기술을 적용한 자료목록 기술에 대한 요구, 목록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토대의 필요성 확산에 따라 파리원칙의 개정이 요구되었다.

2001년 러시아 국립도서관 사서인 나탈리아 카스파로바(Natalia Kasparova)가 IFLA 목록분과회의에 파리원칙을 재분석하고 현재의 요구에 맞춰 그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제안하였고, 2003년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IME ICC에서 파리원칙을 대체할 국제목록원칙의 초안이 작성되었다. IME ICC 참가자들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FRBR 및 FRAD 개념 모델에 기반하고, 모든 종류의 정보원을 포함하고, OPAC과 상호운용 가능하며, 전거통제와 주제목록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파리원칙과의 재분석과 통합을 시도하였다(Guerrini

2009, 723-725). 제안된 초안은 서언, 적용범위, 개체/속성/관계, 목록의 기능, 서지기술, 접근점, 전거레코드, 탐색능력의 기반, 부록(목적 포함)의 순서로 구성되었다.

이후 2007년 남아공 프리토리아에서 열린 5차 IME ICC 결과에 따라 2008년 5월 1일 국제목록원칙 최종안이 발표되어 세계 각국의 도서관계로부터 의견수렴을 통해 재작성 과정을 거쳐 2008년 12월 국제목록원칙 채택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졌고, 2009년 2월 국제목록원칙이 정식으로 출간되었다(Creider 2009a, 583-584).

3.2 내용 범위

파리원칙과 국제목록원칙의 내용구성은 <표 2>와 같이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초안은 범위, 개체·관계·속성, 온라인목록의 기능, 서지레코드의 내용과 구조, 전거형표목의 선정과 구조, 전거레코드, 검색기능으로 내용이 구성되었으나, 최종 원칙에서는 ‘목적’이 ‘일반원칙’으로 추가되고, ‘전거형표목의 선정과 구조’, ‘전거레코드’가 ‘접근점’으로 통합되었으며, ‘온라인목록의 기능’에서 ‘목록기능’으로 용어가 변경되고, ‘서지레코드의 내용과 구조’에서 ‘서지기술’로 변경되었다.

국제목록원칙 2009는 목록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내용범위와 목록기능에서 파리원칙과 큰 차이가 있다(<표 3> 참조). 파리원칙은 인쇄본 및 그와 유사한 특성을 갖는 도서관자료의 목록을 위해 고안되었고, 국제목록원칙 2009는 텍스트자료뿐만 아니라 모든 자료유형을 위한 것이었다.

파리원칙에서는 원칙의 내용범위를 표목

〈표 2〉 국제목록원칙 초안에서 제정까지 내용 변화과정

파리원칙	초안	ICP1 2003	ICP2 2004	ICP3 2005	ICP4 2006	ICP5 2007	ICP 4월 2008	ICP 9월 2008	최종 2009
	소개	소개	소개	소개	소개	소개	소개	소개	소개
	1. 범위	1. 범위	1. 범위	1. 범위	1. 범위	1. 범위	0. 일반목적	1. 범위	1. 범위
1. 범위	2. 개체, 관계, 속성	2. 개체, 관계, 속성	2. 개체, 관계, 속성	2. 개체, 관계, 속성	2. 개체, 관계, 속성	2. 개체, 관계, 속성	1. 범위	2. 일반원칙	2. 일반원칙
2. 목록기능	3. 온라인목록의 기능	3. 목록기능	3. 목록기능	3. 목록기능	3. 목록기능	3. 목록기능	2. 개체, 관계, 속성	3. 목록기능	3. 개체, 관계, 속성
3. 목록구조	4. 서지레코드의 내용과 구조	4. 서지기술	4. 서지기술	4. 서지기술	4. 서지기술	4. 서지기술	3. 목록기능	4. 개체, 관계, 속성	4. 목록기능
4. 자료의종류	5. 전거형태표목의 선정과 구조	5. 접근점	5. 접근점	5. 접근점	5. 접근점	5. 접근점	4. 서지기술	5. 서지기술	5. 서지기술
5. 여러 자료의 이용	6. 전거레코드	6. 전거레코드	6. 전거레코드	6. 전거레코드	6. 전거레코드	6. 전거레코드	5. 접근점	6. 접근점	6. 접근점
6. 다양한 자료의 기능	7. 검색기능	7. 검색기능의 기초	7. 검색기능의 기초	7. 검색기능의 기초	7. 검색기능의 기초	7. 검색기능의 기초	6. 전거레코드	7. 전거레코드	7. 검색기능의 기초
7. 통일표목선정		부록-목적	부록-목적	부록-목적	부록-목적	부록-목적	7. 검색기능의 기초	8. 검색기능의 기초	
8. 개인저자					용어집	용어집	용어집	용어집	용어집
9. 단체저자									
10. 여러저자성									
11. 서명기본저록									
12. 개인명기입어									

※ Creider(2009b)를 중심으로 재구성

〈표 3〉 파리원칙과 국제목록원칙 2009 비교 : 내용범위

	파리원칙	국제목록원칙
자료유형	텍스트 중심	모든 자료유형
범위	표목과 기입어의 선정과 형식	표목의 선정, 형식, 기술, 전거
관점	목록기능	이용자요구(찾기, 식별, 선정, 획득, 향해)
기타	-	탐색, 검색능력

(heading)과 기입어(entry words)의 선정과 형식으로 제한하였다(ICCP 1961, 1). 이는 협력을 위한 이전의 시도가 너무나 상세하여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많은 합의를 이끌어내기 보다 몇몇 원칙으로 제한하려는 의도적인 결정이었다. 파리원칙은 이전의 실패를 토대로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사항을 고려하는 것으로 그 목적을 제한하여 가능한 합의를 이루고자 하였다. 반면 국제목록원칙 제정 시기에는 합의를 기대하기 용이하였고, 표준화의 장점은 너무나

명백하였기 때문에 접근점의 선정과 형식뿐 아니라 기술 및 전거데이터와 같이 파리원칙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사항에 합의할 수 있었다(Creider 2009a, 584-585).

관점도 파리원칙은 '목록의 기능'에 중심을 두었다면 국제목록원칙 2009는 '이용자의 요구'로 변화하였고, FRBR, FRAD, FRSAD 모델을 기반으로 목록이 이용자의 찾기, 식별, 선정, 획득, 향해라는 과업에 따른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온라

인목록에 중심을 두면서 탐색과 검색능력에 대한 방향도 포함하였다(Guerrini 2009, 728-729).

3.3 기술적인 배경

파리원칙과 국제목록원칙 2009는 서로 다른 기술적 맥락에서 탄생하였다. 파리원칙은 알파벳순 혹은 저자나 서명 순에 따라 단일 저록(unit entry)을 사용하는 카드목록 환경에 맞춘 규칙으로 각 표목 하에 동일 도서의 서지정보는 동일한 모습으로 표현되었고, 카드는 저록의 표목으로 배열되었다.

반면 국제목록원칙은 컴퓨터기반 목록을 위한 것으로 최소의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다. 기존 카드목록의 서지정보가 디지털정보패지키의 온라인목록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저장되었다. 즉 MARC 서지레코드가 유닛으로 저장되지 않는 관계형데이터베이스는 서지레코드를 해체시켰고, 이에 따라 검색을 위한 검색어의 결합, 디스플레이를 위한 정보의 재결합이 가능해졌다. 결과적으로 목록에서 표목에 대한 중요성이 줄어들고 기본표목의 개념을 포기하는데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이는 기본저록의 다양한 기능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었다. 기본표목은 첫째, 온라인목록에서 동일 저작의 여

러 판이나 번역서를 집중시킬 수 있는 요소로 사용되었다. 둘째, 기본표목은 검색결과와 디스플레이를 하거나 문헌을 인용하는 요소가 되며, 이것이 없을 경우 온라인목록의 통일되고 표준화된 디스플레이가 불가능하며 시스템마다 다양한 형식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가 선택한 디스플레이 유형과 브라우저나 인터페이스 기능에 따라 화면출력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Creider 2009a, 586-587).

3.4 용어, 개념모델

파리원칙에서 언급한 책, 저자, 기본표목, 부출표목, 통일표목, 판, 저작과 같은 용어는 인쇄 및 카드목록의 전통에서 도출되었다. 자료의 범위가 넓어지고, 목록에 활용되는 기술과 개념이 변화하면서 국제목록원칙 2009에서 이러한 용어는 추상적이고 일반화된 용어로 변경되었다(〈표 4〉 참조). 기본표목과 부출표목은 접근점, 도서는 서지자원, 저자(authors)는 저작자(creator), 목록카드는 서지레코드와 전거레코드, 통일표목은 제어형과 전거형으로 변경되었다. 파리원칙의 저작(works), 도서(books), 판(edition)의 개념은 FRBR의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로 변경되었다(Creider 2009a, 591).

〈표 4〉 파리원칙과 국제목록원칙 2009 비교: 용어

파리원칙 (1961)	국제목록원칙 2009
기본저록 / 부출저록	접근점
도서	서지자원
저자(Authors)	저작자(Creators)
목록카드	서지레코드, 전거레코드
통일표목	전거형과 제어형
저작(works), 도서(books), 판(editions)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국제목록원칙 2009의 추상성이 증가한 이유는 다양한 자료유형을 포괄한 데에서도 기인하지만 주로 개념모델 적용에 따른 것이었다. 반면, 파리원칙은 다음의 이유로 개념모델을 포함하기 어려웠다. 첫째, 파리원칙의 목록이론이 주로 커터의 목록기능인 저자성 원칙, 단체저자 개념, 도서와 저작의 구분(문헌과 서지 단위)과 같은 사항에 제한되었다. 둘째, 당시 규칙은 특정 문제의 해법을 예외규정과 함께 묶어 목록규칙을 개발함에 따라 규칙에 내재된 기본 원칙을 인식하기 어렵게 하였다. 셋째, 비도서자료가 목록에 포함되면서 인쇄자료와는 다른 비도서자료의 다양한 특성을 기존 목록에 통합시키기보다 자료별 특성에 따른 특별 규칙을 개발하였다. 넷째, 목록 이데올로기의 대립 속에서 파리원칙에 단체저자성과 통일표목의 개념을 수용하였다(Creider 2009a, 591-592). 반면, 국제목록원칙 2009의 목적과 목록의 기능은 스페노니우스의 이론에 기반하고, IFLA의 FRBR, FRAD 개념모델을 차용하였다.

개념모델은 충분한 검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이에 따라 국제목록원칙 2009도 개정될 것이다. 미의회도서관의 미래 서지제어에 관한 워킹그룹(Working Group on the Future of Bibliographic Control)은 FRBR이 적합하다는 실험결과가 나올 때까지 AACR2의 교체 작업을 중지하고, FRBR에 대한 전면적인 테스트를 권고하였다(US RDA Test Coordinating Committee 2011, 25). 물론 FRBR은 완전한 모델이 아니며 더 다듬어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이전의 서지모델에 비해 발전적 모델이며 앞으로 목록은 이러한 개념모델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발전될 것이다.

3.5 의사결정

표준의 생성과 채택은 정치적 과정이며, 도서관 표준 제정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파리원칙을 이끌어낸 파리회의의 준비과정은 다음과 같이 매우 치밀했다. Unesco Library Bulletin에 일련의 논문이 게재되었고, IFLA는 목록규칙개정에 관한 위원회를 설립하였다. 파리회의가 개최되기 1년 전에 런던에서 열린 예비회의에서 회의의 범위와 전략을 정했다. 기본표목의 역할, 인명의 형식, 저자성, 목록에 끼칠 컴퓨터의 영향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사전자료가 작성되었다. 원칙 초안이 완성되고,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파리회의에 앞서 여러 나라에서 회의가 개최되었다. 파리회의에서 논의는 핵심 초안에 관한 것이었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초안의 수정이 가해졌다. 결국 회의 참석자는 개정된 파리원칙을 거의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많은 회의와 준비를 거쳤지만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중동 그리고 동남아시아 등의 비알파벳 사용권 나라의 참여가 부족했기 때문에 파리원칙은 영미계, 유럽(서유럽과 중유럽)의 목록전통, 소련사서의 전통의 산물이었다. 따라서 파리원칙은 회의를 통해 나타난 여러 의견들에 대한 좀 더 충분한 조사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은 초안 작성에 참가한 소규모 그룹에 의해 이루어졌다(Creider 2009a, 587).

국제목록원칙 2009 채택과 파리원칙의 채택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2가지 큰 차이가 있었다. 첫째, 파리원칙의 제안과 채택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파리에서 이루어진 반면, 국제목록원칙 2009는 채택과정에서 다양한 국가의 참여적 과정으로 이루어졌다(Creider 2009a,

588). 즉 서지레코드와 접근을 위한 국제목록 규칙을 개발과 파리원칙을 대체하는 목록원칙을 위한 작업이 IME ICC에 의해 2003년 시작되어 2007년까지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작성되었다. 첫 회의는 2003년 7월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렸고, 초안이 만들어졌으며, 2차 회의는 2004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3차 회의는 2005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4차 회의는 2006년 우리나라에서, 5차 회의는 남아프리카에서 개최되었으며, 개최지역에 따라 영어이외에 필요한 언어로도 자료가 작성되었다(IME ICC 2011). 또한 다수의 동의를 강조하는 참여적 과정을 도입하여 각 회의마다 원칙의 변경 요구에 대해 IME ICC의 대표들은 변경사항의 채택 여부를 투표하였다. 2008년 4월 초안이 전세계 해당기관과 개인에게 송부되어 투표 및 의견수렴을 통해 2008년 9월 제작성되고, 2008년 12월에 최종버전이 작성되어 2009년 2월에 출판되었다. 둘째, IME ICC는 파리회의보다 더 많은 나라에서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총 81개국의 대표자가 IME ICC 회기에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물론 국제목록원칙 2009를 완성하는데 주축의 역할을 한 것은 IME ICC 1차 회의에서 주된 내용과 체제를 만들었던 유럽과 영미계의 대표들이었지만, 나머지 회의 참가자는 원칙의 개념, 용어, 조직을 재구성하고, 원칙을 넓히는 데 기여했으며 그 결과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이 개발될 수 있었다. 국제적인 목록원칙을 만드는 과정에 서로 다른 언어, 다른 지역, 다른 원칙을 가진 여러 나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것이야말로 대단한 발전이었다(Creider 2009a, 588-590).

4. 국제목록원칙 2009와 한국목록규칙 비교

4.1 범위

국제목록원칙 2009에는 원칙이 규칙을 제정할 때 지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는 도서관의 서지와 전거데이터, 현행도서관목록을 비롯하여 기록관, 박물관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는 도서관에만 국한하지 않고 기록관과 박물관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IME ICC 2009, 2).

한국목록규칙은 도서관 자료를 대상으로 한 목록규칙으로 기술규칙이며, 표목 혹은 접근점에 대한 규칙은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전거제어를 위한 표목선정과 형식은 전거에서 처리한다고 규정하였다(〈표 5〉 참조).

4.2 일반원칙

일반원칙은 스페노니우스에 의해 작성된 것을 바탕으로 목록규칙과 목록시스템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2003년 독일에서 열린 IME ICC에서 국제목록원칙 초안이 시작되었으며 초안인 국제목록원칙 2003(일명 ICP 1)에서는 일반원칙이 부록에 포함되었으나 국제목록원칙 2009(일명 ICP 5)에서는 2장으로 변경되었다. 규칙의 원칙으로 목록이용자의 편의, 관용법, 표현성, 정확성, 충분성과 필요성, 중요성, 경제성, 일관성과 표준화, 통합성을 목록규칙의 방향성으로 제시하였다.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의 편의성이고, 이것이 목록규칙의 구조를 정하는데 가장 중시해야 할 사항이었다(IME

〈표 5〉 국제목록원칙 2009 측면에서 한국목록규칙 분석

국제목록원칙 2009		한국목록규칙(KCR4)
1. 범위	• 서지, 전거, 도서관목록	• 서지, 도서관목록
2. 원칙	• 목록이용자의 편의, 관용법, 표현성, 정확성, 충분성과 필요성, 중요성, 경제성, 일관성과 표준화, 통합성	[표면적으로 기술되지 않음]
3. 개체, 속성, 관계	• 개념모형의 개체, 속성, 관계 기술	[고려되지 않음]
4. 목록의 목적과 기능	• 개념모형의 탐색(find), 식별(identify), 선정(select), 입수(acquire) 혹은 확보(obtain), 항해(navigate)	• 탐색, 집중
5. 서지기술	• 서지기술의 단위는 개별자료 • 서지레코드 기술 단위는 구현형 • ISBD 준용	[서지기술의 단위는 기술되지 않으나 MARC 레코드는 구현형단위이며, 실제 데이터입력은 개별자료임] • ISBD 준용
6. 접근점	• 제어형접근점과 비제어형접근점, 제어형접근점에서 전거형과 이형을 규정함 • 전거형 접근점은 원문의 언어와 문자로 표현된 저작의 구현형 정보를 우선으로 하고, 이것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 목록이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언어나 문자 중 구현형이나 참고정보원에 기재된 형식을 사용함 • 전거형 접근점의 형식 중 개인명은 구현형이나 참고정보원에 기재된 것으로 개인과 관련된 국가나 언어의 관행을 준수	• 표목대신 접근점이라는 용어를 사용 • 접근점의 선정 및 형식에 관한 사항은 모두 전거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함(접근점에 대한 규칙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음) • 기본표목, 통일표목을 적용하지 않음
7. 탐색능력의 기반	• 서지레코드의 필수접근점 ① 저작자 이름에 대한 전거형 접근점 혹은 둘이상의 저작자 이름이 기재된 경우 첫 번째 저작자 이름의 전거형 접근점 ② 저작/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 등 • 전거레코드에서는 개체의 전거형이름이나 표제, 개체의 식별기호, 개체의 이형의 이름 • 배열은 접근점의 언어와 문자에 관련된 표준에 따라 목록이용자에게 편리한 논리적 순서로 제시	• 서지레코드에 전거형 접근점의 개념을 적용하지 않음 • 접근점에 관한 사항은 전거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함 [배열에 관한 사항은 없음]

ICC 2009, 2). 따라서 목록은 이용자 측면에서 제어형식을 결정하고, 어휘는 대다수의 이용자가 사용하는 어휘와 일치시켜야 한다.

한국목록규칙에는 국제목록원칙의 일반 원칙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규정을 찾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한국목록규칙 총칙에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검색도구인 저록을 국가 수준에서 일관되게 작성함으로써 기술의 표준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한국도서관협회 2003, 3)라

고 기술되어 있는데 이는 규칙의 표준화와 일관성의 원칙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용자 측면의 원칙에서는 벗어난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기술시 축약어를 사용하는 것과 목록의 경제성을 강조한 것 등이 그것이다. 이외에도 이창수(2005, 147)는 KCR4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특정 표목에 대해 하나의 특정 형식을 표준형식으로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는 목록의 유용성 보다는 편목자의 편의성만을 고려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4.3 개체, 관계, 속성

국제목록원칙 2009에서 목록규칙은 개념모델 구현이 가능하도록 FRBR과 FRAD, FRSAD에서 제시된 개체, 관계, 속성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서지데이터와 전거데이터에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개인, 가족, 단체, 개념, 대상, 사건, 장소의 각 개체를 식별하는 속성을 기술해야 하며, 관계속성도 기술가능해야 한다(IME ICC 2009, 2-3).

한국목록규칙은 2003년 개정당시 개념모델의 개체, 관계, 속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국제목록원칙 2009에서 권고한 대로 FRBR 개념모델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한국목록규칙에 개념모델의 개체, 속성, 관계를 기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4.4 목록의 목적과 기능

국제목록원칙 2009는 FRBR 보고서, 스페노니우스의 Intellectual Foundation of Information Organization을 바탕으로 목록의 목적과 기능을 탐색(find), 식별(identify), 선정(select), 입수(acquire) 혹은 확보(obtain), 항해(navigate)로 정의하였다(IME ICC 2009, 3-4). 항해(navigate)는 FRBR에는 없는 기능이지만 스페노니우스 보고서에서 차용한 것으로 카드목록의 제한에서 벗어나 웹환경에 맞추어 목록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자료의 확보(obtain)는 전자 환경에서 수서와 접근의 형태는 크게 변화하였기 때문에, 목록이용자가 온라인자원을 검색하고 접근할 수 있는 수서 및 접근정보도 제공해야 한다(Guerrini 2009,

728-729).

한국목록규칙에서는 목록의 기능을 첫째, 특정 저자, 표제, 주제의 저작을 탐색하는 것과 둘째, 특정 저자의 모든 저작과 특정 저작의 모든 상이한 판을 목록상에 집중하는 2가지로 보았다(한국도서관협회 2003, 3). 최근 동일 내용의 여러 유형의 자원이 많아지고 여러 판이 생기면서 저작을 중심으로 자원을 모아주는 집중기능은 목록규칙에서 중요한 기능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는 현행 목록에서 자원을 탐색하는 것은 용이하나 집중시키는 기능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며, 우리나라 목록규칙에서도 저작단위의 집중을 위한 목록기술이 모색되어야 한다.

4.5 서지기술

국제목록원칙 2009는 5장에 서지기술의 대상과 서지기술 시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권고하였다. 첫째, 개념모델을 위해 각각의 구현형별로 독립된 서지기술을 작성해야 하고, 서지기술은 구현형의 대표적인 사례인 개별자료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IME ICC 2009, 4). 이러한 권고안이 나오기까지 서지레코드의 대상에 관한 오랜 논란이 있었다. 이미 국제목록원칙 2003에서 서지레코드는 구현형을 반영한다고 규정되었으나, Patrick Le Boeuf는 구현형은 하나 이상의 물리적 단위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레코드가 구현형이 아닌 개별자료를 대표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국제목록원칙 2009에서 서지기술은 일반적으로 구현형의 대표적인 사례인 개별자료에 기초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Guerrini 2009, 729). 이는 서지레코드 작

성은 다수의 개별자료 집합인 구현형을 단위로 하지만, 실질적인 목록을 할 경우 개별자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둘째, 기술 데이터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인 ISBD에 근거하도록 권고하였다(IME ICC 2009, 4). 일반적으로 ISBD를 구두점 기술규칙으로 취급하고, 요소의 표현형식이나 디스플레이를 위한 것으로 인식하는 등 낮은 수준의 표준으로 취급하였다. 그러나, ISBD는 데이터 분석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능을 갖는다. 즉 목록자가 데이터를 검색·인식하도록 하며, 데이터 요소간의 연계를 중시하고, 이러한 요소를 특정의 의미있는 순서로 표현하여 논리적 위치를 명확하게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언어적 장벽을 넘어서 데이터요소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서지분석에서 주요 기능은 자원 속성간의 관계를 강조하고, 이러한 관계를 데이터의 논리·지적 순서로 표현하는 것이며, ISBD는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는 표준이라 할 수 있다(Guerrini 2009, 730).

한국목록규칙에서는 서지기술의 단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기본적으로 KORMARC 레코드의 단위가 구현형 단위이며, 목록 시에 개별자료를 대상으로 서지기술하고 있어, 국제목록원칙 2009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다.

한국목록규칙 총칙 1.0.0.1(기술원칙)에 ISBD에서 규정한 요소와 순서에 따라 서지사항을 조직적으로 기술한다고 규정하고 있어(한국도서관협회 2003, 9) 이는 서지기술시 ISBD를 바탕으로 기술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한국목록규칙 제정 당시 참고한 ISBD는 이미 ISBD 2010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정된 ISBD 2010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4.6 접근점

접근점은 국제목록원칙 2009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서지데이터와 전거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한 것으로 전거형 접근점의 선정과 형식이 그 핵심적인 내용이다. 접근점은 제어형 접근점과 비제어형 접근점으로 구분되고, 제어형 접근점은 전거형과 이형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접근점은 자원에 대한 서지레코드를 집중시키기 위해 일관성이 요구된다. 비제어형접근점은 전거레코드에서 제어되지 않는 접근점으로 구현형의 서명, 키워드 등이다(IME ICC 2009, 4). 접근점의 선정에서 서지레코드에 대한 접근점으로 저작과 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 구현형의 서명(비제어형접근점), 저작자에 대한 전거형 접근점이 포함된다. 전거레코드에 대한 접근점은 개체에 대한 전거형식과 이형의 이름이 포함된다(IME ICC 2009, 4-5).

전거형 접근점의 선정시 이름이 여러 가지 언어나 문자로 된 경우 원문의 언어와 문자로 표현된 저작의 구현형에 나타나 있는 정보를 우선으로 하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목록 이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언어나 문자 중 구현형이나 참고정보원에 기재된 형식을 근거로 정할 수 있다. 개인, 가족, 단체가 여러 이형을 사용하는 경우 전거형 접근점을 근거로 하나의 이름을 선정하고, 저작과 표현형에 대한 전거형 접근점도 하나의 표제를 채택한다(IME ICC 2009, 5-6).

전거형 접근점의 이름 형식은 구현형이나 참고정보원에 기재된 것으로 개인, 가족, 단체와 관련된 국가나 언어의 관행을 따르도록 하고, 저작/표현형의 이름형식은 표제이거나 저작자

의 전거형 접근점과 결합된 것일 수도 있다고 규정하였다(IME ICC 2009, 6-7). 이와 같이 국제목록원칙 2009에서 전거형 접근점을 위한 이름의 선정과 형식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적용 시 많은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지만, 이는 해당 국가나 언어의 관행을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전거형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지 않았고, 전거형 선정시 목록이용자에게 적합하여 널리 인정되는 이름으로, 전거형 이름의 형식은 국가나 언어의 관행을 따르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한국목록규칙에서는 이미 표목대신 접근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기본표목과 통일표목을 적용하지 않는 등 파리원칙에 비해 최신 목록이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기본표목을 규정하지 않는 것은 기계가독목록에서는 특정 서지자료에 대해 대부분 단일저록만을 작성하기 때문에 실제로 기본표목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없으며, 목록의 기능 수행에서 다른 접근점과 기능상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이다. 결과적으로 기본표목도 검색을 위한 여러 유형의 접근점 중 하나라는 것이다(한국도서관협회 2003, ix-x). 또한, 통일표목도 적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특정 표목에 대해 하나의 특정 형식을 표준형식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동일 접근점의 상이한 형식 간의 연결기법을 통해 전통적인 표목의 검색기능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 통일표목의 개념을 목록에서 배제하였다. 이 기법으로 특정 표목에 대한 대표형식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결과적으로 표목의 선정과 그 형식을 결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전통적인 표목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한국도서관협회 2003,

x). 이러한 사상에 따라 한국목록규칙 4판에는 서지기술만 규정되어 있고, 접근점의 선정과 형식은 전거에서 처리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국제목록원칙 2009에서 전거형 접근점의 선정과 형식을 규칙에 포함될 사항으로 취급하고, 전거형 접근점의 선정과 형식은 관련 국가나 언어의 관행을 따르도록 융통성을 있게 규정하고 있어, 한국목록규칙에서 전거형 접근점의 선정과 형식을 전거 MARC와 같은 입력 형식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목록규칙에 고유한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FRBR, FRAD를 적용하기 위해 저작 및 표현형의 식별을 위한 전거형 접근점은 통일표목 및 기본표목이라 볼 수 있어 이를 서지레코드 및 전거레코드에 기술할 수 있도록 목록규칙에 반영해야 한다. 국제목록원칙 2009에서 탐색을 위한 필수접근점에 저작자의 이름에 대한 전거형 접근점 혹은 둘이상의 저작자 이름이 기재된 경우에는 첫 번째 저작자 이름의 전거형 접근점, 저작/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이 포함되었다. 이는 저작 및 표현형 식별을 위한 장치로 기존 기본표목의 개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상 기본표목은 검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부출표목과 큰 차이가 없지만 기본표목은 검색의 기능 이외에도 저작의 집중기능을 위해 필요하다. 또한 검색된 결과를 논리적으로 디스플레이하고, 관련 서지정보를 연계하기 위해서도 기본표목이 필요하다(Taylor & Joudrey 2009, 265-271). 특히, 도서관 현장에서는 기본표목이나 통일표목의 형식을 규정하지 않기 보다는 오히려 여전히 기본표목을 자관의 별도 규정에 따라 채택하고 있어 표목이 무원칙 상태로 남아있다. 시대적

으로 다양성의 조화가 덕목이 되기는 하지만 도서관 목록에서 여전히 통일성과 표준화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KCR4에서 표목의 형식에 관한 방침이 도서관 현장에서 폭넓게 수용됨으로써 목록의 통일성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도태현 2010, 188).

4.7 탐색능력 기반

탐색능력기반은 목록이 효율적인 정보검색을 위한 조건으로 저작 및 표현형을 위한 필수 접근점과 이에 대한 온라인목록 배열에 관한 사항이 핵심이다.

서지레코드의 필수접근점으로 저작자에 대한 전거형 접근점(혹은 둘이상의 저작자 이름이 기재된 경우 첫 번째 저작자 이름의 전거형 접근점), 저작/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이 포함되어 있다. 전거레코드의 필수접근점은 개체의 전거형 이름이나 표제, 개체의 식별기호, 이형이 포함된다(IME ICC 2009, 7).

서지레코드의 필수 접근점은 FRBR과 FRAD의 저작/표현형 식별을 요소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저작의 집중기능을 위해서는 구심점이 될 접근점에 대한 사항이다. 이미 RDA에서는 저작 및 표현형 기술에 대한 채택접근점의 선정과 형식을 지정하고, 이를 통해 여러 저작을 구분함과 동시에 동일 저작의 여러 표현형과 표현형을 모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이미화 2011, 39), 국내 목록규칙에도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검색결과와 게시 순서에 대해 국제목록원칙 2009는 접근점의 언어와 문자에 관련된 표준에 따라 목록 이용자에게 편리한 논리적인

순서로 제시되어야 한다(IME ICC 2009, 8)고 밝히고 있다. 이는 목록의 집중기능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FRBR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며, 주제명, 시리즈, 포맷 하에서 다양한 배열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현행 온라인목록 디스플레이에서는 이러한 목록 이용자의 편의가 항상 적용되지 않는다(Guerrini 2009, 755).

현재 모든 목록규칙은 서지기술과 접근점에 대한 규칙만을 규정하고 검색결과에 대한 지침을 규정하지 않는다. 국제목록원칙 2009에서는 검색결과와 배열에 대한 최소한의 지침으로 “이용자에게 편리한 순서”라고만 제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과거 카드목록시대에 목록의 배열과 순서는 모두 일관성이 있었으나 현재는 온라인목록의 인터페이스마다 다양한 배열을 제공한다.

따라서 저작 및 표현형의 검색과 검색결과와 이용자에게 편리한 순서로 배열하기 위해서는 서지레코드내에 전거형 접근점을 규정해야 하며, 최소한의 검색배열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이용자를 위한 검색결과 디스플레이에서 일정한 온라인 화면출력을 위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 한국목록규칙 고려사항

5.1 기술

기술부분에서는 한국목록규칙은 이미 ISBD를 수용하고 있으나 최근 자료유형을 구분하지

않은 ISBD 2010이 출판되어 국내 목록규칙도 통합된 ISBD 2010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ISBD와 달리 ISBD 2010에서는 자원유형을 통합해 자원을 내용, 용기로 기술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FRBR, FRAD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둘째, FRBR, FRAD 개념모델 중 저작 표현형 개체를 위한 속성을 서지데이터 및 전거데이터에 기술할 수 있도록 규칙이 수정되어야 해야 하며, 서지간의 다양한 관계를 기술할 수 있는 기술요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5.2 전거형 접근점

국제적인 전거형 접근점의 통일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제안되고 있다. IFLA UBCIM Working Group on Minimal Level Authority Records과 ISADN에서 국가, 언어가 다른 전 세계 모든 서지기관이 동일한 접근점을 사용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고, 동일 개체에 여러 전거형 접근점을 인정함에 따라 유일한 전거형 통일표목의 원칙은 더 이상 필요없다. 이에 따라 전거형 접근점은 여러 문화적 언어적 환경에 맞추고, 다양한 규칙에 따라 작성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 수준에서 언어적 통일성은 필요없으며 단일한 언어도 필요하지 않다. 명확한 하나의 형식으로 된 단일한 이름이 아니라 다양한 전거형 이름이 사용되고, 이용자는 자신의 언어에 맞춰 목록을 검색할 수 있다. 다수의 전거형 접근점은 VIAF(Virtual International Authority File)을 통해 여러 시스템간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VIAF는 도서관의 협력프로젝트로 참가도서관의 전거파일이

동시에 검색되며, 데이터가 전거레코드를 포함한 슈퍼레코드에 재축적된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VIAF는 접근점을 구조화한 것도 아니고 전거파일도 아니며, 이는 이미 존재하는 전거 데이터를 연계하고 디스플레이한 장치일 뿐이다(Guerrini 2009, 733-734). 이렇게 기술된 접근점의 통일성은 매우 낮았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시스템은 개발되지 않아 이러한 전거 개념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제목록원칙 2009는 전거 통제와 접근점을 구조화하는 방향을 제시하였고 전거형 접근점의 선정과 형식에서 최소한의 원칙만 제시하고 있다. 즉 VIAF의 실현을 위해 전거레코드에 전거형이름, 이형이름, 식별기호가 포함된다고만 기술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일관성 개념이 도입되면서 복수의 전거형 접근점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즉 국제적인 수준의 통일된 표목은 사라졌으며, 다수의 전거표목의 상호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개념모델, 목록원칙, 표준, 국가 및 다국적 규칙간의 관계는 자관 다양성의 원칙을 고려한다는 대원칙을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전거형 접근점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며,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국가적 혹은 언어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수준에서 융통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한국이라는 언어적 환경에서 전거형 접근점의 선정과 형식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물론 국제적으로 통일된 전거형 접근점의 개념은 사라지고 형식에서 다양성의 여지를 주고 있지만 이는 동일 언어체계의 단일 국가의 전거형 접근점 선정과 형식에 관한 규정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원문의 언어나 문자가 사용되지 않아 전거형 접근점으로 선정되기 어려울 경우 국가나 언어의 관행을 따르는 것처럼, 전거형 접근점에 대한 국가의 목록규정이 기관의 상황 상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로컬의 규정을 따른다고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거형 접근점의 선정, 형식에 관한 국가 규정은 필요하며, 목록의 여러 수준간의 관계를 적용함에 있어 국제 목록규칙은 국가목록원칙에 남겨야 할 요소를 표시해야 하고, 국가의 목록규칙은 로컬목록규칙에서 다뤄야 할 요소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거형 접근점에 관한 각 계층화된 목록 규칙이 상호 상치되지 않고 서로 일관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KCR4에서는 기본표목이나 통일표목이 모두 불필요하며 표목의 선정과 형식을 전거에서 처리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표목이 접근점으로 대체되고, 통일서명은 전거형 접근점, 전거형 이름형식, 이름으로 대체되는 등 단어만 변경된 것이지 개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동일 저작의 여러 판을 집중하는 기능 이외에도 저작/표현형의 식별이라는 측면에서 전거레코드와 서지레코드에 전거형 접근점이 필요하다. 전거형 접근점 제어는 다양한 링크를 통해 검색을 제공하는 디지털시대에는 맞지 않아 보일 수 있으나 디스플레이 및 인용을 위해 전거형식의 선정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6. 결 론

지금까지 국제목록원칙 2009 측면에서 한국 목록규칙의 방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문헌연구로 국제목록원칙의 개념과 기능, 1961년 개발된 국제목록원칙인 파리원칙과 당시 개발된 목록규칙의 비교, 파리원칙과 국제목록원칙 2009를 비교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목록원칙 2009의 측면에서 한국목록규칙의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첫째, 기술부분에서는 한국목록규칙은 ISBD 2010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개념모델 중 저작 표현형 개체를 위한 속성이 기술되도록 해야 하며, 관계 기술요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로컬다양성의 원칙과 기술은 단일 국가의 전거형 접근점에 대한 선정과 형식 규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며, 각 수준별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한국목록규칙을 위한 전거형 접근점이 목록규칙에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저작/표현형의 식별이라는 측면에서 전거레코드 뿐만 아니라 서지레코드 내에서 이를 식별하는 전거형 접근점이 필요하다.

목록의 세계는 이론과 실재간의 지속적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 현재 목록현상이 FRBR이라는 이론적 모델의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론과 목록 현장간의 생산적 상호작용이 더욱 필요하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다시 목록원칙과 FRBR은 수정되어 보다 발전적인 목록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제목록원칙 2009에 따라 목록규칙의 제정과 이를 실현하고 적용하면서 발전적인 제안이 도출되고, 이를 다시 적용하여 발전적인 목록원칙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이재선. 2009. 새로운 목록 원칙과 규칙: ICP, ISBD, RDA를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 발표논문집』, 21: 117-150.
- [2] 이미화. 2011. AACR2에서 RDA로 목록규칙 변화에 따른 KCR4의 고려사항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8(1): 23-42.
- [3] 이창수. 2005. 한국목록규칙 4판에 반영된 목록의 유용성.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3): 137-148.
- [4] 도태현. 2010. 도서관 목록에서 표목의 취급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4): 171-189.
- [5] 한국도서관협회. 2003. 『한국목록규칙』 4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6] Bianchini, C. & Guerrini, M. 2009. "From bibliographic models to cataloging rules: Remarks on FRBR, ICP, ISBD, and RDA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m."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47(2): 105-124.
- [7] *Cataloguing Code Comparison for the IFLA Meeting of Experts on an International Cataloguing Code*. 2003. Response submitted April 22, 2003. Draft. [online]. [cited 2011.12.20].
 <http://www.dnb.de/standardisierung/pdf/code_spain_e.pdf>.
- [8] *Cataloguing Code Comparison for the IFLA Meeting of Experts on an International Cataloguing Code*. 2003. [online]. [cited 2011.12.20].
 <http://www.dnb.de/standardisierung/pdf/code_comp_2003_europe_9_other.pdf>.
- [9] Creider, L. S. 2009a. "A comparison of the Paris Principles and the International Cataloguing Principles."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47(6): 583-599.
- [10] Creider, L. S. 2009b. "The development of the statement of the International Cataloguing Principles." In *IFLA Cataloguing Principles: The Statement of International Cataloguing Principles (ICP) and its Glossary*. Munchen: Saur, 14-24.
- [11] Guerrini, M. 2009. "In praise of the un-finished: The IFLA statement of International Cataloguing Principles."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47(8): 722-740.
- [12] ICCP. 1961. *Statement of Principles*. [online]. [cited 2011.7.28].
 <http://sibuc.ucuenca.edu.ec/site/local/File/ABCD_Workshop_CUE/MARC/paris_principles_1961.pdf>.
- [13] IME ICC. 2003. *Statement of International Cataloguing Principles*. [online]. [cited 2011.10.2].
 <http://www.d-nb.de/standardisierung/pdf/statement_draft.pdf>.

- [14] IME ICC. 2009. *Statement of International Cataloging Principles*. [online]. [cited 2011.10.2].
 <http://www.ifla.org/files/cataloguing/icp/icp_2009-en.pdf>.
- [15] IME ICC. 2011. *IFLA Meetings of Experts on an International Cataloguing Code*. [online].
 [cited 2012.5.2]. <<http://www.ifla.org/en/node/576>>.
- [16] Svenonius, E. 2000. *Intellectual Foundation of Information Organization*. Cambridge, Mass: MIT Press.
- [17] Taylor, A. G. & Joudrey, D. N. 2009. *The Organization of Information*. 3rd ed. London: Library Unlimited.
- [18] US RDA Test Coordinating Committee. 2011. *Report and Recommendations of US RDA Test Coordinating Committee*. [online]. [cited 2011.12.20].
 <<http://www.loc.gov/bibliographic-future/rda/rdatesting-finalreport-20june2011.pdf>>.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Lee, Jae-Sun. 2009. "Saeloun moglok wonchikgwa gyuchik." *Proceedings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onference*, 21: 117-150.
- [2] Lee, Mihwa. 2011. "A study on considerations in KCR4 through changes of cataloging rules from AACR2 to RD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8(1): 23-42.
- [3] Lee, Chang Soo. 2005. "An analysis of usability of the catalogue in the KCR4."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6(3): 137-148.
- [4] Doh, Tae-Hyeon. 2010. "A survey on the managing of headings in library cataloging."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1(4): 171-189.
- [5]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03. *Korean Cataloguing Rules*. 4th ed.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